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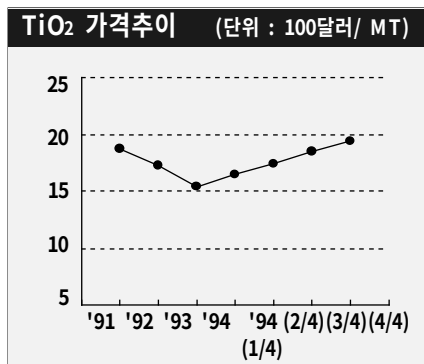
TiO₂ 가격 “이상급등”

Dupont · SCM 가격담합 ... 톤당 1650달러선 상승

94년 1/4분기동안 이산화티타늄 가격이 톤당 1650달러선에서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으며, 이는 93년 4/4분기에 비해 약 100달러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러한 가격상승은 89년 하락세로 접어든 이후 지난 5년간 15%의 가격하락을 보여왔던 미국의 TiO₂시장이 자동차 · 페인트 · 건축 등 수요산업의 성장에 따라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.

또 TiO₂를 생산하는 Dupont · SCM 등이 자국우선 공급원칙을 계획함에 따라 자국에서 수요되고 남은 물량을 동남아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TiO₂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

국내의 TiO₂ 총수요량은 93년 5만2200여톤으로 94년에는 이보다 21% 증가한 6만7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전체량의 58.8%인 3만7000톤이 도료용으로, 41.4%인 2만6300톤이 플라스틱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올해 수요량이 예년보다 늘어난 것은 기존의 자연 증감 외에도 각 분야별로 약간씩 새로운 시장이 창출됨에 따라 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.

페인트의 경우 렉키가 새로이 페인트 시장에 참여했고 플라스틱용으로는 금강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러한 실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몇년간 하락세를 보이던 TiO₂가격이 인상되면서 그에따라 발생하는 소비자들

의 가수요가 한몫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.

실제로 Dupont · Ishara · Tioxide등 국내에 TiO₂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94년 시작과 함께 TiO₂를 100달러 인상했으며 올해 매분기마다 100달러씩 인상해 94년말에는 1950달러선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.

미국 최대의 TiO₂ 생산기업들인 Dupont과 SCM은 수요증가로 인해 재고물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90%에 가까운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, 미국의 전체 TiO₂ 생산기업들의 가동률은 93~94%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또한 Dupont과 SCM의 파운드당 3센트 인상이 있는 뒤 많은 기업들이 가격인상을 추진, 미국의 TiO₂가격은 파운드당 90센트의 가격대를 기록하고 있다.

한편, 세계 TiO₂생산량은 지난 93년 295만2000톤에서 올해에는 4.5% 증가한 305만9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, 북미시장은 지난 93년 114만5000톤에서 올해 3.3% 증가한 119만9000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